



1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이 현충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동하는 양심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공식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와 장남 흥일씨 등 유가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여권에서는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와 김기현 대변인,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애원에서도 추도식이 열렸다.

신안군은 이날 오전 히의면 김전 대통령의 생가 주차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거행했다. 전남도청 김대중 광장에서도 목포시 주관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현화 및 분향, 추모식 낭송, 시립예술단의 추모 공연, 김전 대통령의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중 연보’ 현정, 유족대표 인사, 현화 및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유언 같은 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빙자리가 너무나 크고 깊지만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뜻을 이루신 꿈을 저희가 이룩해 영전에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과 목포에서도 추도식이 열렸다.

신안군은 이날 오전 히의면 김전 대통령의 생가 주차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거행했다. 전남도청 김대중 광장에서도 목포시 주관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현화 및 분향, 추모식 낭송, 시립예술단의 추모 공연, 김전 대통령의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염주주공 재건축 걱정된다

- ① 안전진단 C등급 이상땐 사업 불가
- ② 화정주공 뒤이어 주택 수요 불투명
- ③ 1군 건설업체 시공사 선정 어려움
- ④ 조합원들 분양가 반발도 배제 못해

U대회 부대시설·행사장 조성 본격 착수

오는 2015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인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에 이어 부대시설 및 행사장으로 쓰일 염주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업체 선정 및 분양가·권리가액 산정 과정의 마찰, 소형 평수 부족, 원주민 재입주 대책 부재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염주주공의 경우 비교적 노후 정도가 덜 해 다음달 7일 끝나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화정주공 재건축 물량(3726세대) 공급 후 지역 내 주택 수요가 있을지 여부 등 변수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화정주공 재건축과 같은 광주시의 보증이 불가피해 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올 들어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지역주택수요를 감안한 1군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할지 여부

한나라 지명직 최고위원

김장수·홍문표 임명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는 18일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초선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과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각각 호남 및 충청 대표성을 감안한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중립 성향의 김 의원은 참

김장수의원

홍문표사장



도 불투명하다.

염주주공 역시 화정주공과 마찬가지로 광주U대회 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19평 아파트의 가격이 1억2000만원을 호가해 분양가와 권리가액의 격차로 인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배제 할 수 없다.

염주주공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김능권(48) 위원장은 “염주주공이 화정주공에 비해 대지면적과 평수가 넓고 위치도 좋아 여간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문제는 주택수요가 있을지 여부”라며 “화정주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도 화정주공 재건축이 논란 속에 추진되면서 염주주공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정주공 재건축 후 염주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고,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18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경계에 입문해 현재 당 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부위장을 맡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충남 흥성·예산)을 지낸 흥 사장은 당시 부총장·충남도당 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흥 사장은 친이(친이명박) 인사로 분류된다.

김장수 최고위원 지명자는 “당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호남 농수특산품과 함께 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광주일보사가 ‘제2의 청춘, 아줌마들의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1회 아줌미 축전’을 개최합니다. 가정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소비주체인 주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전에는 인기가수 공연 및 각종 축제 이벤트가 펼쳐지며 광주·전남북 모든 시·군·구의 최우수 농수축특산품 판매부스가 설치됩니다.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 첫째날 9월2일(금)



● 둘째날 9월3일(토)



● 셋째날 9월4일(일)

- 시·군예술단공연/호남예술단공연/아줌마골든벨/나도스타다(장기자랑경연)/다문화가족장기자랑대회(예선)/아줌마마腆스경연/아줌마영상편지/유명가수 축하콘서트
- 9월1일(목)전야제/품바경연대회(예선)/아줌마가요제(결선)
- * 이벤트 참가자 전원 상품권 제공/입장객 매일 1천명 경품 제공
- * 친구문의 : 광주일보 홈페이지. www.azim.kr
- * 흥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선착순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 후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KB금융그룹·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농림수산식품부·농협전남지역본부·농협광주지역본부

수완 골드클래스 야심작

수완지구에는 이렇게 넓은 중소형 아파트도 있습니다!

중소형의 실속 인기평면, 대단지의 프리미엄, 4Bay, 4Room, 3면 벌코니.

단지 앞 신완공원과 풍부한 교육시설, 무등산 조망까지!

귀하가 꿈꾸던 골드라이프의 시작 – 수완골드클래스

25 30 34
29세대 797세대 768세대



← 타사 동일 타입과 비교하여 광주 최대, 각 실별 최대 30cm 더 큰 광폭 신평면설계 →

총 584세대

59.98㎡(구25형) 219세대 / 74.96㎡(구30형) 197세대 / 84.92㎡(구34형) 168세대

현장 : 수완지구 C3-3블록 시행 : 골드클래스 | 주 시공 : 보광건설(주), 골드디움(주) 분양 : (주)누리산업개발

분양 문의 1544-5506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이미지입니다.